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서거 20돐 중앙추모대회 엄숙히 거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서거 20돐 중앙추모대회가 8일 평양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추모대회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중앙추모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모사를 하였다.

그는 민족의 아버지이시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20년이 되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가장 곁철한 인민의 수령, 절세의 위인의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극적인 전변이 일어난 20세기의 갈피마다에는 가장 중엄한 시련을 헤치시며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여오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정치가,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10대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장장 70성상 인민의 행복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모든 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순직하신 위인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비범한 예지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현대력사를 자주의 계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이시라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라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위인으로서의 품모를 가장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라고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는 주체혁명의 승리적진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한생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우리 혁명과 자주시대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를 마련하신것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불멸의 공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위업을 빛나게 실

현하시어 주체혁명의 계승완성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태도를 마련하여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위업계승에서 기본인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였으며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고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뛰어난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세기와 세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3대 현장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제에 마지막 친필을 남기시며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

업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즐기차게 이어지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당의 령도가 있기에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의 모든 구상과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고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천세만세 무궁번영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할것이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 밑에 나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끝으로 그는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역세게 싸워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추모대회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관리운영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먼저 야외물놀이장에 새로 설치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볼수록 잘 만들었다고,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어서 더욱 마음에 든다고, 《대동강》상표를 칩 붙이니 얼마나 좋은가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급강하물미끄럼대설치를 손색없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다음 야영부리 아이들이 마음껏 리용하게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새로 꾸린 거울집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야영소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나날이 늘어나고있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족관을 돌아보시면서 상어를 비롯한 희귀한 물고기들의 종수와 마릿수가 늘어났다고 기뻐하시였으며 해수욕장을 돌아보시면서는 야영생들이 해양체육도 할수 있게 못배도 마련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하고

있는 야영소의 전용역인 송도원역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야영생들을 위한 직통렬차를 마련하고 운행준비까지 다해놓았는데 역사를 야영생들의 편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개성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에서 품을 넣어 꾸려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야영소의 일군들, 교직원,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물조감도, 전개도, 평면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2항공역사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2항공역사건설을 잘하고있다고, 마음에 든다고, 그동안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건설을 마무리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2항공역사의 모

든 시설들을 현대적인것으로 갖추고 봉사시설들을 특색있게 건설하며 봉사활동을 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건설은 당에서 특별히 관심하는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계획된 공사를 질적으로 잘하여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을 선군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러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훈련을 지도하시고 응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공군의 섬상륙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섬상륙전투훈련에는 조선인민군 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공군부대들의 전투원들과 각종 구경의 포들, 잠수함을 비롯한 전투함선들,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편대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간 훈련장은 불달린 화약마냥 활화산같이 노호했다.

강철포신들에서 연속 날아가는 시벨진 불출기들, 하늘을 썰며 금강하하는 비행대들과 물갈기를 세차게 날리며 돌진하는 해군함정들, 바다속을 헤가르는 잠수함에서 뿜어진 증오와 복수의 명중탄들로 하여 하늘땅, 바다가 세차게 뒤흔들렸다.

《적》들이 도사린 섬에서 삼단같은 불기둥이 연해연방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잘 짜인 협동작전으로 연속 강타를 들어내는것을 보시고 타격시기를 바로 정하고 신속성, 정확성, 일치성을 보장하여 집중화력타격을 들어대면 적들을 초절 임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섬에 대한 강력한 화력타격에 이어 항공폭격전병들의 전투행동과 배합한 보병의

섬상륙전투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쌍안경으로 전투원들이 섬을 바라보며 타고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잘한다고, 싸움준비에서 매일이면 늦는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훈련으로 밤을 새우고 새날을 맞이해온 일당백싸움군들이 다르다고 치하하시였다.

섬을 완전히 점령하였다는 전투결속신호란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제전법의 요구가 그대로 구현된 섬상륙전투훈련이 잘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함을 타시고 바다에 나가시어 전투함선들을 사열하시며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 신성한 우리 조국의 서남전선해역은 한중도 못되는 적들때문에 때없이 위협을 받고있다고, 얼마전에도 적들이 갈겨댄 포탄이 우리 령해에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있었다는것을 상기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를 매우 엄중시하며 단단히 버르고있다고, 원수들이 열섬수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번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드실것이라고 준결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

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지에서 전략군 참모부가 작성한 발사계획, 설정된 비행케도와 목표구역복제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시고 전술로켓발사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순간 어두운 장막을 깨고 대지를 밝히며 솟구친 전술로켓들이 조국사랑과 원수중주의 일념으로 응축되던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제정된 목표를 향하여 창공을 기운차게 헤가르기 시작하였다.

실질을 방불케 하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이번 전술로켓발사훈련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의 전술로켓들의 명중성과 전투적위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으며 긴급정황발생시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투행동질서와 화력임무가 정확히 규정되고 각이한 적목표에 따르는 사격방법이 완성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전술로켓발사훈련이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신속한 기동과 배합하여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략군의 싸움준비와 주제적인 로켓전법을 적용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아무리 선

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로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력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하시면서 전략군부대들이 앞으로 오늘 진행한 실천과 같은 훈련들을 통하여 로켓무분싸움준비를 더한층 강화하며 즉각적인 발사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광증을 강력한 군사적억력으로 제압해나가기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3대혁명붉은기 응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영정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돌아보시면서 방어대에 어려있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포진지에서 방어대군인들의 화력복무훈련을 보신 다음 포사격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고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방어대군인들이 목표를 통쾌하게 명중타격하는것을 보시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쏘았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명포

수, 명사수로 자라난 군인들을 만날 때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어대 1중대 1소대 1포에 명포수상장을, 군인들에게는 명포수메달과 명포수휘장을 수여할데 대한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그들을 환포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어대군인들의 기계체조훈련도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응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방어대 1중대와 3중대의 병실, 교양실, 세목장, 식당, 창고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피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군인가족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을 일일이 알아보고서 섬초소군인들과 가족들의 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방어대에 은정깊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응도방어대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1중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방어대군인들,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조국을 방호할 때마다 나는 강성국가건설을 목표로 삼고있는 조국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것은 평화적환경이라는것을 실감하군 한다.

그런데 안정되고 평온한 환경보장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침략적인 무력증강과 핵전쟁연습을 강행하며 어떻게하나 조선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해 항시적인 위협을 받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수호되고 제3차 세계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과 같은 세 전쟁이 미연에 방지되고 평화가 유지되고있는것은 조선의 확고부동한 평화수호의지와 무진막강한 전쟁억제력의 결과라는데는 조국에서 찾게 되는 정답이다.

조국에 체류하는 동안 나는 김정은령도자께서 인민군대의 섬상륙전투훈련, 전술로켓발사훈

련, 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지도하시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것은 평화적환경이라는것을 실감하군 한다.

그분께서는 전략군 장병들에게 우리 인민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적환경은 그 누가 마련해주는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팔고 살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진정한

평화는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자기의 힘이 강할 때에만 지켜지고 오직 자기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다. 나에게는 작년에 로씨야사람인 라브렌체 구르드지예브가 쓴 글의 한 토막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 이 지구상에 조선처럼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겪은 나라가 없으며 이처럼 큰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반세기이상 조국수호와 세계평화수호의 싸움을 벌여 승리한 나라는 없을것이다. 반세기이상 상의 봉쇄, 정전속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세계평화수호, 이것만으로도 조선은 웅대 세계의 경탄을 받아야 한다. ...

력사기도 정치기도 군사기도 아닌 평범한 작가의 견해이지만 울

김정은령도자는 오늘의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이며 조선의 힘이고 백전백승의 상징이다.

부연하건대 그 어떤 반공화국 적대세력도 로켓발사, 유도탄발사훈련이든 자기의 정당방위를 위한 조선의 자주적이고 자위적인 대응책에 대해 이리쯤저리쯤 구설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평화는 말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한 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조국의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소감이다.

려도, 응도, 화도방어대들과 해군부대들을 비롯하여 전선에서 전선으로 반제자주, 평화수호의 깃발을 이어가시며 굳건하게 최선을 다하고계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 계시어 조국강대로 영원한 평화가 있을 날이 꼭 있게 될것이라는것을 믿어마지 않는다.

재중동포 현 광문

승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주제59(1970)년 이른 봄 어느 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안남도 온천지방으로 현지지도를 떠나시였다.

평양-남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승용차가 통강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평안-남포도로를 따라 달리는 승용차가 통강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부편은 영문을 몰라 그이께 온천으로 가지지 않는가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는 온천으로 간다고 하시였다. 부편은 다시금 의아해지였다.

온천은 통강읍을 거치면 40리 가량이고 남포방향으로 하여 가도 60리길이다. 더구나 지금껏 온천방향으로 가지거나 도 평양으로 되돌아오실 때면 일부러라도 꼭꼭 통강읍을 지나 다니군

세 해 동안 에 돌아

하신 그이께서 왜 남포방향으로 에 돌아 가지려는지 알 리 없는 부편은 자못 얼터름해 하였다.

이윽고 수령님께서 부편에게 속도리앞을 지나고싶지 않냐고 그러냐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부편과 운전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지난 시기 속도리를 지나시는 것은 수령님의 기쁨이였다. 그곳에는 그이께서 일찍부터 잘 아시는 림근상농민이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는 전국농민일성대회때 밀밭조과 파종기를 만든 그의 토론을 들으신 때로부터 그를 진짜농민이라고 하시며 각별히 믿고 내세우시며 대해주시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속도리를 지날 때면 차를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시며 누군가를 찾는 눈길로 차창밖을 살피곤 하시였다. 그러면 리해 림근상농민이 나타났고 그때마다 수령님께서는 그와 만나 농사일을 의논하시며 시간 가는줄 모르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집필을 남기신 때로부터 20년이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시기부터 민족분렬을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어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인 통일로선과 방안들을 조국통일3대원장으로 정립하시고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 6.15 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정책, 방안과 방도들은 가장 정확하고 공명정대했것으로 하여 오늘날은 온 겨레의 지지를 받고있으며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통일유훈관철을 최대의 승고한 사명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 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업무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으로 커다란 난관과 시련을 겪고있다.

역정세는 복잡다단하다. 령강들의 침에한 갈등과 패권경쟁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고있는 오늘 이 땅의 주인인 북과 남이 백해무익한 대결을 지속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은 외세에게 통략당하게 될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적으로 개척해나가기 할 중대한 시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현시기 민족약애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라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북과 남은 무모한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기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적대와 대결이 극도에 달하여 사소한 언행이나 사소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과 민족적파멸로 이어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 가 지속되고있다.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해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합쳐야 할 중대한 시기에 동족끼리 소모적인 정쟁으로 민족의 참화를 불러오는 비극적 사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림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사상과 제도가 다르면 덮어놓고 적대하던 령정시대의 관념에서 결단코 벗어날 때가 되었다.

각이한 사상과 제도를 가진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서로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그 어떤 리유로도 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적대관념을 버리고 동족대결정책을 령복화해정책으로 바꿀 대응단을 내리야 한다.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산물인 외세와 야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을 전면중지하여야 한다.

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헌신과 투쟁의 귀중한 열매인 북남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화해와 단합을 위한 기본요구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이 부정당하고 대결에 악용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북남수뇌분들에 의하여 마련된 6.15, 10.4선언을 비롯하여 북남합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2. 북과 남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기야 한다. 천천만년이 가도 외세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을 대변해줄수 없다.

이것은 사대로 망국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의 과거사와 오늘 외세개입으로 내전과 혼란에 빠진 여러 나라들의 참혹한 현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북과 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나라의 분렬을 통해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외세의 회색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북과 남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림장에서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내부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지지》를 청탁하고 동족을 모해하는 《제제》와 《공조》를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략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 행위이다.

우리의 핵은 통일의 장에도, 북남관계개선의 걸림돌도 아니며 공화국의 핵무력은 외세의 침략야망을 억제하고 자주통일과 민족단대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거들며 외부에 나가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내부문제에 간섭하려는 외세의 부당한 행위를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에 공동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것이 없다.

우리는 북남관계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풀어나가려는 림장에 선다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손잡고 나갈것이다.

3. 북과 남은 온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령방제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신평프로세스》나,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허물을 쓰고 《제도통일》, 《휴수통일》을 추구하고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이다. 북과 남에 군 70년동안이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서로가 자기의 체제를 고수하고있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은 곧 전쟁의 길의 의미한다.

동족이 장구한 기간 갈라져 살아온것만도 가슴 아프게는 일인데 북과 남이 자기의 제도만을 고집하여 전쟁의 화를 불러들인다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자멸행위는 없을것이다.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에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령방제안과 남측의 령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과 남은 령방련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존,

공영, 공리를 적극 도모해나가기야 한다.

4. 북과 남은 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야 한다.

현시기 화해와 단합의 유리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나가는것은 극도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전제이다.

동족사이 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온갖 비방중상부터 종식시켜야 한다.

북남사이의 령연적주대와 동포애의 정을 가로막고있는 법적, 제도적조치들을 해제하고 접촉과 래왕, 협력과 대화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종북척결》소동으로 각계각층의 통일열망이 윤풀당하고 반공화국적대의식이 고취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하루속히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연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제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령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것이다.

우와 같은 우리의 원칙적립장들과 성의의 조치가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완화하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기기가 마련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기라는 승고한 책임감에서 출발한 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은 온 겨레가 적극 지지하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호응해나서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제 103(2014)년 7월 12일 평양

길림 땅에 울려 퍼진 영생 축원의 송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 성대히 진행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 세월이 두 번이나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다.

얼마전 민족최대의 추모 일을 맞으며 조국인민들과 함께 재중동포들도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인류의 대성인

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수령님에 대한 경모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통일신보사 편집국은 중국의 길림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취재하였다.

세월이 흘러가도

7월 1일 아침 우리 취재단은 심양시에 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를 찾았다.

회고음악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문제를 토의하던 총련합회의 성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회고음악회준비가 잘되고있는가를 묻는 우리에게 최수봉부장은 지금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각 지부들, 모든 재중동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길림에서 진행하게 되는 회고음악회를 뜻깊게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수령님을 따르는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해마다 7월 8일을 맞을 때면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는 사업을 전통화하고있다. 이번에도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 회고음악회를 크게 조직하자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재중동포들의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충정의 마음이다. 우리의 이 그리움, 충정의 마음을 그대로 회고음악회무대에 터쳐놓으려고 한다.》

한길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국장장은 25년전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고 기념사진을 찍던 뜻깊은 날을 추억하면서 한없이 자애롭고 인자하신 태양의 그 영상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아버지수령님을 생각하면 힘이 솟고 열정이 샘솟는다고 하면서 수령님은 어제도 오늘도 배돌 재중동포들의 어버이이시며 천만민 따르고 받들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말하였다.

그는 선전일군으로서 어떻게 하면 7월 8일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널리 선전하는 사업을 의있게 해나가겠는가 하는데 모든 정력을 바쳐간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재중동포들의 열의가 활화산처럼 터져오르는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들의 말속에서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수령님을 따르고 받드는 재중동포들의 마음은 절대변한것임을 뜨겁게 확인할수 있었다.

그리움의 노래, 경모의 노래

길림. 내 일생에서 참으로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아버지수령님 회고록에서 뜻깊게 회고하신 길림땅이다.

80여년전 갑갑한 밤하늘에 새별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조선의 청년지도자를 찾아 열혈의 조선청년들이 저지마다 달려오던 이 길림으로 오

늘은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를 안고 중국 각지에서 동포들이 달려왔다.

동포들은 먼저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아버지수령님 동상앞에 다함없는 흙모와 충정의 마음이 어린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중국 심양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령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고 이어 중국길림육문중학교, 중국합일혁명투쟁연고자, 재중동포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이어 송화강기슭에 있는 송화강대극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가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회고음악회 무대의 전자막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고 관람석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음악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 산하 각 지구협회 일군들과 지부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와 총령사관 일군들, 동북3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공화국공민들이 참가하였으며 길림성인민정부 외사관공실 령사처 부처장, 길림시 인민정부 외사관공실 주임, 길림시공안국 부국장과 길림육문중학교 교장을 비롯

한 중국의 여러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음악회에서는 먼저 최은복 의장의 발언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시어 가장 위대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어언 20년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동포들은 아버지수령님에 잊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조국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경에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상을 놀래우는 조선속도로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나가고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회고음악회가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영웅 서사시적인 한생에 대한 소중한 회고의 자리로, 우리 해외동포들이 경에하는 원수님

의 령도따라 애국위업에 자기의 고결한 충정을 다 바쳐갈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는 뜻있는 자리로 되기를 바란다

《인생의 불빛》에 담아 절절하게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회고음악회에는 중국예술인들도 참가하여 노래를 불렀다.

무대에 오른 지휘자는 길림땅에 살고있는 중국인민들은 김일성주석님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오늘 회고음악회에 몇사람만 참가하여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존경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려 한다고 격정을 터쳤다.》

시고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 《장군님 생각》, 《인생의 불빛》에 담아 절절하게 불러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회고음악회에는 중국예술인들도 참가하여 노래를 불렀다.

무대에 오른 지휘자는 길림땅에 살고있는 중국인민들은 김일성주석님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 오늘 회고음악회에 몇사람만 참가하여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존경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려 한다고 격정을 터쳤다.》

정녕 그들이 목청껏 부른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중국인민들과 함께 어깨를 결고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항일전선에서 조국건설의 정을 꽃피워주시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개화발전시켜 오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열렬한 칭송의

송가였다. 재중동포에 출연들은 《우리는 길림사람》에서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모시고 사는 길림사람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노래하면서 송화강흐름이 영원하듯이 영원히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실 재중동포들의 진심을 감동깊이 터쳐놓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고음악회무대에는 위인칭송의 송고한 화폭을 높은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곡목들이 연이어 울렸다.

음악회의 절정을 이룬 혼성4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와 대중창 《우리는 당신을 모른다》에서 예술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경에하는 김정원수님만을 민족의 령도자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해외동포 운동에 애국의 운동, 충정의 운동으로 힘차게 달려갈 자기들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회고음악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깊은 연고관계를 맺은 황진생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회장과 중국의 장화화선생의

가족을 비롯한 연고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수령님과 맺은 각별한 인연은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태양의 그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수령님을 모시고 받들어나갔다고 격정에 겨워 토로하였다.

음악회는 합창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로 끝났다.

그 이튿도 추억깊은 길림의 송화강대극장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를 통하여 전체 참가자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을 감동깊이 돌이켜보면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따라 애국충정을 다 바쳐나갈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길림땅 아니 온 동북땅에 울려 퍼진 그리움의 노래, 경모의 노래는 세월의 끝까지 무궁토록 울려 퍼지리라.

조국으로, 수령님 품으로

우리 통일신보사 취재단의 취재는 길림땅에서 끝나지 않았다.

단에서 조국으로 향하는 열차안에서도 우리의 취재는 이어졌다.

회고음악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선전부국장 길림에서 회고음악회를 가졌지만 이렇게 조국에서 진행되는 추모 행사에 참가하려 열차를 타고 달려나 감회가 더욱 깊다

《수령님을 뵈오려 가는 이 평양길에 정말 뜻깊은 길이라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껏 조국을 많이 방문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0돐을 맞으며 조국으로 가는 심정은 류다르다고 하면서 평양이 다가올수록 그리움은 더욱 커만 간다고 토로하였다.

동주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사무국 부국장은 길림에서부터 나의 마음은 수령님 계시는 평양으로만 달려있다고 하면서 아버지수령님의 령전에 전체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려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심정이라.

열차안의 모든 동포들의 마음이, 아니 동북땅에 사는 모든 재중동포들의 마음이 수령님 품으로 달려있었다.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차고넘치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물론 비록 해외에 살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수령님 품에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평양에 두고 싶어 수령님을 못 잊어 그리워하는 재중동포들의 마음을 엿볼수 있었고 아버지수령님을 천체만세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받들고 따르는 해외동포들의 진실하고도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느낄수 있었다.

평양으로만 달리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서인가 열차는 기운차게 달리고 달리고 있다. 그리운 조국으로, 아, 아버지수령님 품으로. 본사기자 김대룡



조석님을 영원히 못 잊어

이번에 길림에서 진행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0돐 회고음악회》에 참가하고보니 정말 주석님 생각이 더욱더 사무치고 간절해진다.

저는 아버지수령님을 4번이나 만나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사람이다.

다심하신 친정아버지 같은 신 주석님 품에 안겨 행복의 눈물을 흘리던 그 날과 날들을 어찌 20년 세월이 흘렀다고 잊을수 있겠는가.

1992년 4월 탄생 80돐을 맞은 주석님께 삼가 건강축원의 인사를 드렸을 때 그이께서는 오늘 재중예술인들이 공연을 참 잘했다고, 공연을 보니 길림생각이 난다고 뜻깊게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한평생 잊지 못하신 이 길림땅에 오니 그날의 주석님모습이 더욱더 사무치게 안겨오고 아버지의 사랑이 못견디고 그리워진다.

우리 재중동포들을 한 품에 안으시고 배부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사랑과 은정은 20년세월 동포활동을 애국의 활동으로 꽃같이 이어갈수 있게 한 무한대의 힘이었고 고무였다.

동포사업을 하는것이 결코 험한 일은 아니다. 때로는 동요한적도 있었고 힘들어 주저앉은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떠밀어준것은

아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미소였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던 자애로운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나는 20년세월을 변치 않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걸어올수 있었고 우리 동포들을 조국의 참된 해외공민으로 맺

게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으신 경에하는 김정원수님이 계신다. 나는 대원수님들을 따라 애국의 한길만을 걸어온것처럼 경에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내 생애 다할 때까지 애국의 한길, 충정의 한길만을 꽃같이 걸어가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이 우리 해외동포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애국사업에 나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고 다 바쳐나갔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결시 지부장 리혜영

뜻이 살도록 동포사업을 해올수 있었다. 우리 동포들에



가수가 되어 지금껏 오랜 세월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긍지스러웠던 시절은 아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노래를 부르던



나의 간절한 소원은

매라고 해야 할것이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나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다. 봄축전에 참가할 때마다 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그이앞에서 노래를 부르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하였다.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나는 오늘 회고음악회에서 《시랑기》와 《꽃파는

치너》를 불렀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라 지금껏 내가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수령님에 대한 가장 뜨거운 흠모와 경모의 분출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토로이기도 하다. 저의 노래를 두번이나 들어주시고 앞날을 축복해주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어려와 나는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

할수 없었다.

오늘은 비록 길림에서 그리움의 노래를 부르지만 앞으로는 꼭 고국에서 경에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노래를 부르고싶다.

이것은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조신을 세계만방에 펼쳐 주고 빛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고싶다. 위대한 수령의 노래를 가지고있는 인민의 앞길은 언제나 휘황찬란하다. 재중동포가수 최경호

아시아경기대회와 군사연습

《북의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의지가 상당히 보인다》

남조선 각계가 환영

아마 체육경기만큼 평화와 친선, 단결을 지향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반영한 활동은 없을 것이다. 비록 성별과 나이, 피부색과 언어는 서로 달라도 함께 어울려 승부를 겨루는 체육경기야말로 평화와 친선, 단결과 협조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하기에 프랑스코육구가 꾸뎀의 발기로 부활된 올림픽경기대회도 모든 대륙의 체육에 호가들과 청년들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고 세계 평화와 사회진보에 이룩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4년에 한번씩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며 《아시아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아시아경기대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아시아경기대회가 17번째로 남조선의 인천에서 열리게 된다.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아시아의 45개 나라가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얼마전 공화국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참가자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것은 즉시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인천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열렬한 환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천시는 《북의 참가가 남북화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조직위원회 역시 《북 선수, 임원단, 안전문제, 숙박과 공동훈련 등 북선수의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

라고 하였다. 지금 온 세계가 공화국의 조치에 반가움과 환영을 표시하고 그것이 단절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오늘의 북남관계는 민족의 지향과는 반대로 대결과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조선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후 6.15시대의 모든 성과들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종래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하였다는 동족대결과 불신이 격화되어 사소한 언행이나 사소한 마찰도 위험한 충돌과 민족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것이 오늘의 북남관계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공화국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고 한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취한 지극히 애국적인 조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돌아보면 지난 시기 북과 남은 체육분야에서의 접촉과 레왕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을 추동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대학생경기대회,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때 공화국은 선수단과 함께 대규모의 응원단도 파견하였었다. 당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공동입장하고 경기장마다에서 북과 남이 따로 없이 함께 어울려

웨치던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의 합성은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그때와 같은 감동적인 화폭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그보다 기본 일은 없을 것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진행되지만 그를 위한 평화적 행위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8월에 남조선에서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

화약배를 질게 풍기는 군사연습이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국제체육경기대회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더우기 이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을 겨냥한 핵선제공격 훈련, 침략전쟁습습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원래 《울지연습》은 1968년 이른바 《북특수부대의 청와대침투사건》을 계기로 실시하여온 《민관합동훈련》으로서 《유신》독재시기의 대표적인 동족대결정책의 산물이다. 이것이 1975년부터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인 합동군사연습인 《포커스 렌즈》와 통합되어 《울지 포커스 렌즈》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오다가 2008년부터 《울지 프리

덤 가디언》으로 개칭되게 되었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와 내용이 해마다 확대되어온 대규모의 위협천만한 전쟁연습이다. 2008년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첫 《울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 미군 무력 1만여명과 수십만명의 북남조선군병력, 《향토예비군》 무력, 《정부》 공무원들이 참가하였다면 지난해에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3만명의 미군과 남조선군의 군단, 함대, 비행단급이상의 지휘부 5만여명과 3 500여개의 기관에 50만여명이 동원되는 세계최대규모의 실전훈련으로 확대되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도 발전적이고 선제공격적인 훈련으로 보충확대되어왔는데 2010년에는 북의 《금반사태》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2012년에는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하여 연습이 진행되었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전략특목기 《B-52H》 편대가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훈련까지 진행하였었다.

사실상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올해에도 거어 강행하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당화될 수 없고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란다면 긴장화해를 풀이올 침략전쟁연습을 중단하는 결단부터 내려야 한다.

금방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진 땅에서 북과 남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며 또 어울린다고 해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미 남조선당국은 1990년 대초에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 전례도 있다.

현 남조선당국이 그때와 같은 결단을 내린다면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한걸음을 내짚는 것으로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지난 7일 공화국정부는 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서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할 것을 정식 발표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성명은 발표되자마자 남조선 정계와 각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논평에서 《북은 남조선당국이 아시아경기대회 흥행은 물론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결정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북이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더불어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자기 당의 입장을 밝혔다.

남조선의 집권여당인 《새

누리당》은 논평에서 《북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방문은 최근 얼어붙음대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며 《조직위원회와 인천시 그리고 우리 《새누리당》은 북의 손님들을 정성껏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인천시는 공화국의 응원단파견이 북남간장해소와 대화성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이날 《북은 2005년에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바 있다.》며 《북선수단과 응원단의 두번째 방문으로 인천이 북남화해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통일맞이》는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북의 응원단파견결

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남과 북이 남북선수단을 같은 공간에서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족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의 확고한 표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8일 《북은 남조선과 건, 《정부》의 환영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남북의 공동응원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게 하는 뜨거운 열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 몫》이라고 강조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북이 정부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에서 열리는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하면서 《북이 응원단을 보내며 남북관계개선의지를 밝히는 것을 보면 북의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의지가 상당히 보인다고 평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김철진

금메달로 민족의 존엄을 떨치려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화국에서는 경기에 참가할 선수단의 훈련이 더욱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내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선수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애국의 각오이고 열의이다.

그 열의를 안고 훈련에 맘을 바치는 선수들중에는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하늘 높이 휘날린 이름난 우수

한 선수들이 많다.

얼마전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울란바타르그랜드유술경기대회 너자 78kg급경기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설경선수도 온 나라 인민이 다 알고 사랑하는 선수이다.

7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공화국을 비롯하여 27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선수 280여명이 참가하였다.

설경선수는 예선경기에서 중국대북, 캐나다선수들을, 준결승경기에서 마자르선수들 보기 좋게 누르고 결승경기에서 진출하였다.

결승경기에서 설경선수는 독특한 경기진법과 완강한 투지로 도이힐란드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국제경기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영예의 단상을 올라선 금메달의 주인공 설경선수 그는 2013년 세계유술선

수권대회 너자 78kg급경기에서도 도이힐란드, 마자르, 일본, 캐나다, 네델란드선수들을 모두 반란 또는 한판으로 모두 좋게 매치고 우승을 한 처녀형장사이다.

평양기계대학체육단 선수인 그의 나이는 올해 24살이다. 평양에서 철도로출신의 딸로 태어난 설경선수는 어려서부터 동갑배기는 물론 한두살우인 총각애들까지 어찌지 못할 정도로 힘이 좋았다고 한다. 이런 육체적 조건으로 하여 체육전문가들의 눈에 들게 되었으며 결국 11살때부터는 평양기계대학체육단에서 유술선수로 활약하게 된 것이다.

2012년 세계여자유술경기대회 70kg급경기에서의 1등을 비롯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여러차례 우승하여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고 2013년 공화국의 10대최우수선수로도 뽑힌 설경선수는 국제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쟁취하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어갈 애국의 일념으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설경선수

응원 열기, 통일 열기

대회일이 성대히 이루어졌으며 경제와 문화,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된 체육경기들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민족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통일의 새 희망을 안겨주었다.

남조선에서 진행된 국제경기들에 공화국의 선수들과 응원단의 참가로 경기장들은 가는 곳마다 환희와 격정의 물결로 파도쳤다. 경기들마다에서 북과 남이 하나되어 떨치는 단합된 힘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2002년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제14차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하여 2003년 대구에서 진행된 대학생경기대회,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공화국의 선수들과 응원단의 활동으로 하여 민족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경기장을 달구며 북과 남의 선수들이 벌린 벽찬 경기들, 북과 남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는 하나다!》, 《우리의 민족끼리!》, 《조국통일!》을 웨치며 진행한 열띤 응원들은 온 세계에 울려 퍼졌던 북과 남의 하나이며 조선민족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혈육임을 소리높이 과시한 잊을 수 없는 화폭들이었다. 그날의 환희, 격동적인 화폭들을 잊을 수 없는 우리 겨례이며 그 날들을 울려퍼졌던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의 합성을 고히 간직하고있는 우리 민족이다. 이번엔 인천아시아경기대



제 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열띤 응원을 하는 북과 남의 응원단

민족의 존엄을 떨치려고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내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선수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애국의 각오이고 열의이다. 그 열의를 안고 훈련에 맘을 바치는 선수들중에는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하늘 높이 휘날린 이름난 우수

응원 열기, 통일 열기

대회일이 성대히 이루어졌으며 경제와 문화,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진행되었다. 그중에서도 북과 남을 오가며 진행된 체육경기들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민족모두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으며 통일의 새 희망을 안겨주었다.

남조선의 각계층에서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방문은 최근 얼어붙음대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북의 응원단참여로 아시아경기대회 흥행은 물론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저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겨례의 지향이고 요구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있는 것이다. 국제경기들에서 북남의 통일열기를 통일열기이다. 북과 남의 온 겨례는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머리위에 드리운 대결과 불신의 검은 구름을 밀어내고 환희의 6.15시대에 부산이나 대구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지에서 울려퍼진 통일의 합성을 이번엔 진행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더욱 힘차게 울려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

지금 온 겨례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애국적의 일념으로 발포된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이어 발표된 정부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그에 남조선당국이 하루속히 응해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우기 북의 정부성명에서 표명한 인천에서 열리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이 파견되는 것에 대해 열렬한 호응을 보내면서 그의 성과적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온당치 못한 이리저리러한 소리가 튀어나와 내외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남조선군부당국은 공화국의 정상적인 로케트발사와 군사훈련을 두고 《도발과 위협》이라는 판에 박은 소리를 늘어놓던 끝에 《특별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합법적 전술》이니, 《화전방면전술》이니 하며 시비질해나갔다. 그런가하면 《KBS》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파견장발표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남남갈등책》이니, 《정치적방안》이니 뭐니 하던 나머지 북의 국방위원회 특별제안과 공화국정부성명에서 천명된 제안은 《스포츠와는 무관한 정치공세》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꺼내내고 있다.

날로 뜨겁게 불출되는 겨례의 북남관계개선요구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알려진 것처럼 며칠전 공화국에서는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원 전술유도탄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이 공화국군대의 전술로케트발사 훈련도 보기 좋게 진행되었다.

공화국에서 성공리에 진행된 로케트발사와 훈련은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행위로서 주권국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위행위이다. 이러한 훈련이 그 누구에게 《도발과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북의 정상적인 훈련이 《위협》으로 보이는 자들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며 북을 어찌보겠고 그외한 노리는 침략세력들뿐이다.

지난 11일 남조선의 부산항에는 미국핵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입항하였다. 《조지 워싱턴》호가 남조선에 기여든것은 단순한 유람이나 하자고 온것이 아니다. 전투기 70여대를 실고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핵항공모함들이 나라는 지역들에서는 언제나 정세가 긴장되고 전쟁의 위협이 뒤따랐다. 이러한 핵항공모함이 남조선에서 앞으로 벌어지게 될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나타났것은 매우 엄청난 사태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자들이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외세를 마구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전쟁억제력강화를 《위협》으로 묘사하는 남조선군부당국의 태도는 그들이 어제도 오늘도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화국의 선수단과 응원단파견장발표와 관련하여 이를 대하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태도에 대해 이번 기회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공화국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립장표명을 한것은 북남관계개선과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애국적의 일념에서, 평화와 친선, 단결을 도모하는 국제체육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파견장발표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남남갈등책》이니, 《정치공세》이니 하고 떠드는것은 굳어질대로 굳어진 대결관념에 포로되어 색안경을 끼고 덮어놓고 동족을 모함하는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이 여전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북남관계개선과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온 겨례의 지향과 요구가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고있는 때에 이에 정면배치되는 남조선보수언론들의 사고관점과 그에 따른 행동은 현실과 분리된 매우 불미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족이 있고서야 진보도 보수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벗어나 누구나 다 민족의 보익을 앞에 놓고 그에 맞게 행동할 때이다. 북남관계개선과 민족의 단합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재를 뿌리는 망동은 언제든지 통일을 바라는 겨례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남조선군부당국과 보수언론들은 겨례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따바로 알고 민족의 리익에 저촉되는 해로운 망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김응철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제 14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열띤 응원을 하는 북과 남의 응원단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민족의자랑

이 산생되고있는 것이다. 수용자들은 정보원의 잔인한 만행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거짓자백을 하고 《간첩》의 억울한 루명을 쓰고있으며 잘살게 해준다 하는 회유와 기만에 넘어가 거짓언론으로 정보원의 모략과 날조행위에 가담하고 심중에 시달리고있으며 달력조차 없는 독방에서 범도생에 대한 감시적인 수행으로 끝내 《우리 오빠는 간첩》이라는 거짓증언

